http://doi.org/10.21186/IPR.2022.7.1.035

초고령사회 노인학대의 발생원인 및 유형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박현승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A Study on the in Improvement of Elder Abuse through Analysis the Causes and the Type of Elder Abuse the Super-aged Society

Hyun-Seung Park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yongg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학대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 마포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은 독립변수를 노인학대 발생원인으로, 통제변수를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종속변수를 노인학대 경험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발생원인과 발생원인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노인학대 발생원인에서는, 연령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노인학대 발생원인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미만이 대학원졸업 보다 높은 것을 나타났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의 노인학대 발생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조사대상자의 노인학대 발생원인 가운데 개인적 요인, 가족환경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의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학대 발생경험이 증대하는 결과를 의미한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발생원인과 발생원인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노인학대 발생원인에서는, 연령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노인학대 발생원인과 발생경험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대상자들의 노인학대 발생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노인학대 발생원인 가운데 개인적 요인, 가족환경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의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학대 발생경험이 증대하는 결과를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노인학대는 개인적 요인, 가족환경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에 따른 노인학대 발생이 많아짐으로써 노인학대 유형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학대의 개선을 위해서는 노인학대의 유형에 따른 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함을 이 연구를 통해 결과로 나타난다.

주제어 초고령사회, 노인학대, 노인학대 발생원인, 노인학대 유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n Improvement Plan to determine the cause of the abuse occurred for the elderly who live in urban areas, and analyzed by typ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rvey targeted the more than 65-year-old man as the center of Seoul Mapo area. The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research model is elder abuse causes, the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as control variables population was the dependent variable in the elderly abuse. As a result; First,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the cause and the cause of elder abuse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causes of elder abuse, age of the higher age group showed high levels of elder abuse causes. Showed that less than a high school education than graduate school. Second,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occurrence of elder abuse experiences of the subjects. Personal factors of elder abuse causes of those surveyed, family environmental factors, social, and refers to the result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cultural factors increase the occurrence of elder abuse experience. Third,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the cause and the cause of elder abuse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causes of elder abuse, age of the higher age group showed that the level of elder abuse occurs and causes high experience. Fourth,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occurrence of elder abuse experiences of the subjects. This personal factors of elder abuse causes of those surveyed, family environmental factors, social, and refers to the results of the higher levels of cultural factors that increase the occurrence of elder abuse experience. In conclusion, elder abuse is personal factors, environmental factors, family, social and cultural factors, the higher the level can be seen that type of elder abuse Elder abuse occurs, formed by many, accordingly.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elder abuse should be healing the cause according to the type of elder abuse appears essentially as a result from this research.

Key Words super-aged society, elder abuse, causes of elder abuse, type of elder abuse

Received 03 Jan 2022, Revised 11 Jan 2022
Accepted 20 Jan 2022
Corresponding Author: Hyun-Seung Park
(Kyonggi University)
Email: geumbat1004@daum.net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의학과 과학의 발달, 생활수준과 환경의 개선 등으로 인구의 평균수명이 늘어나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문제가 원인이 되어 21세기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이근홍, 2021: 3)[1]. 한국사회는 고령화사회와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시점에 있다(양철수, 2021:5)[2].

한국사회는 이미 고령사회를 지나고 있다. 즉 2000년에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한 후에,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홈피, 2022)[3]의 주민등록 기준 연령별 인구현황에 따르면, 2017년 8월 총 인구수 51,753,820명 가운데 65세 이상인 노인은 7,257,288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14.0%를 초과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되었다. 2021년 12월 현재 노인 인구 8,851,033명으로 전체 인구의 17.1%에 이르고 있다. 고령인구 비중은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도 점차 증가하여 2036년 30%를 넘어서고, 2060년 43.9%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통계청, 2021: 2)[4].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전통적 노인 부양 의식의 약화 및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노인은 학대를 겪을 가능성이 큰 집단에 속하고 있다(노병일, 2020: 152)[5]. 특히 경제적 능력이 없는 여성 노인인구의 증가와 질병・장애노인의 증가는 자녀들의 부양부담을 가중시켜 노인학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노인학대에 대해 개인문제나 가정문제로만 방관하고 방치할 수는 없으며,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접근과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그에 대한 인지를 높여서 노인학대를 하나의 사회문제로 보고 그 예방과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시각이 필요하다.

2. 이론적 배경

2.1 초고령사회의 도래

1970년 이래 한국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경제적 수준의 증가, 의료서비스 확대에 의한 수명 연장 등 환경 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동시에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인구 고령화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다(송진영 외, 2020: 10)[6]. 고령화는 한 국가에서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인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UN 분류기준에 따라 각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고령화사회란 인구 구조의 변동을 나타내며, 사회적 고령화를 내포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는 UN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했을 때를 말한다(박종란, 2020: 60)[10].

초고령화현상은 전 세계적 인구구조 변화의 추세로 많은 국가에서 이미 이에 적응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급속하게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고, 노인인구 역시 양적 급증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노인층 규모의 확대는 노인집단의 특성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정경자, 2020: 90)[8]. 65세 이상 노인집단 안에서도 출생시점별 또는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라서 다양성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65세 전 후반 노인과 80대 후반, 90대 이상의 연령별, 그리고 교육수준과 건강상태 등에 따라 집단의 다양성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김영철 외, 2021: 56)[8]. 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특성의 다양화는 관련 복지서비스의 욕구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는 요양서비스를 비롯하여 고용복지서비스, 여가복지서비스, 주거 관련 서비스 등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박종란, 2020: 61)[10].

2.2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정의) 5항은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9조의 9에 따르면,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학대(elder abuse)에 대한 정의를 정리해보면, 일반적으로 노인학대가 주로 가정 안의 노인의 배우자, 성인자녀, 친척 등에 의해 노인에게 일어난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기본적으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 방임의 학대유형 등은 동의하나, 언어적 학대, 성적 학대, 자기방임, 유기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이하다(임정문 외, 2020: 223)[11]. 또한 학대의 용어조차도 통일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즉 심리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정신적 학대를 혼용 또는 나열하여 사용하거나, 언어적 학대를 따로 구별하기도 하지만, 정서적 학대 또는 심리적 학대와 같이 하나의 유형으로 보기도 하고, 재정적 학대는 물질적 학대, 경제적 착취, 재정적・물질적 학대 등 여러 용어들로 설명하고 있어 매우 혼란스럽다(지은정, 2021: 30)[13].

2.3 노인학대 피해자의 행동양태

노인 학대피해경험은 위기상황으로 스트레스 수준을 높여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학대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학대 상황이 감소할 수 있다. 효과적인 대처행동은 학대 상황이 감소하거나, 학대가 다시 발생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노길희 외, 2021: 332)[7], 학대에 대한 대처행동은 직접적으로 학대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고립되고 소외되어 있는 학대피해노인이 사회활동을 할 경우 지지자원 확보가 가능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에 착안하여, 학대피해노인 본인의 행동특성에 따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추론하였다. 노인 스스로 학대상황을 노출시키지 않거나 순응할 경우 더욱 잠재화 되고, 장기화될 수 있다. 따라서 학대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학대피해경험노인의 대처행동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노년기 사회활동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종교활동과 여가활동을 활발하게 할 경우, 학대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학대피해경험 노인의 행동특성에 대한 조절변수로 대처행동과 사회활동(종교활동, 여가활동)을 설정하였다.

2.4 노인학대의 발생원인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원인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2021: 32)[15]는 학대행위자 원인과 가족과 관련된 원인으로 나누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노인과 관련된 원인, ② 부양자와 관련된 원인, ③ 가족상황적 원인, ④ 사회적 원인으로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오지선(2021:15)[14]에 따르면, 노인학대의 주된 원인은 노인의 개인적 특성,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 가정·환경적 요인, 세대 간 학대의 전이,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다.

결론적으로 노인학대는 이들 원인 중 한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기보다는 여러 원인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며, 또한 각 원인들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상호 역동적으로 작용한다.

2.5 노인학대의 유형 분류

「노인복지법」 제1조의 2항 4호에 따르면,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2021: 10)[15]에 따르면, 노인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중복학대 등 일곱 가지로 분류한다.

2.6 최근 노인학대 발생원인의 실태분석

보건복지부(2021: 39)[15]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년의 경우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5,243건→6,259건, 19.4% 증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우울장애, 스트레스 및 가족갈등 등으로 불가피하게 노인학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외부 출입이 제한되면서 노인부부 및 자녀동거가구 등 학대행위자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 노인학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김민철, 2022: 9)[12]. 자녀동거 가구의 경우 전년대비 29.7% 증가('19년 1,588건 → '20년 2,060건)하였으며, 노인부부 가구는 22.6% 증가('19년 1,669건 →'20년 2,046건)하였다. 또한 학대피해노인이 학대행위자와 동거 중인 경우가 전년 대비 22.6% 증가('19년 3,584건 → '20년 4,359건)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방법 및 대상

본 연구는 도시지역 노인학대의 발생원인과 학대유형을 연구하여 이에 따른 조치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범위는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조사자의 편의에 의한 편의추출방식을 채택하였고, 세부적으로 서울시 마포구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2 연구 모형

본 연구는 노인학대 발생유형에 따른 발생원인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노인학대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노인학대에 대한 조치방안 및 학대 감소를 통한 노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를 노인학대의 발생원인, 종속변수를 노인학대 유형별 경험으로 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은 총 480명이었고,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 종교, 혼인상태, 동거유형, 월평균소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268명(55.9%), 남자 212명(44.1%)으로 여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65-69세가 281명(58.5%)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129명(26.8), 80대 70명(14.7%)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미만이 119명(40.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고졸이 180명(37.5%), 대학교졸업이 80명(16.6%)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317명(66.0%)으로 많았고,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63명(34.0%)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311명(64.8%)으로 많았고 배우자가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69명(3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유형은 독거가 152명(31.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배우자가 148명(30.8%), 아들이 82명(17.0%), 딸이 37명(7.7%), 친척이 31명(6.4%), 기타가 30명(6.5%) 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은 50-100만원이 176명(36.6%)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100-150만원 102명(21.2%), 50만원 이하 84명(17.5.%), 150-200만원 62명(12.9%), 200만원 이상 46명(11.8%)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4-1>와 같다.

〈표 4-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480)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212	44.1
	여자	268	55.9
연령	65-69	281	58.5
	70대	129	26.8
	80대	70	14.7
학력	고졸미만	192	40.0
	고졸	180	37.5
	대학교졸업	80	16.6
	대학원졸업	28	5.9
종교	종교 없음	317	66.0
	종교 있음	163	34.0
혼인상태	배우자 없음	169	35.2
	배우자 있음	311	64.8
동거유형	배우자	148	30.8
	아들	82	17.0
	딸	37	7.7
	친척	31	6.4
	독거	152	31.6
	기타	30	6.5
월평균소득	50만원 이하	84	17.5
	50-100만원	176	36.6
	100-150만원	102	21.2
	150-200만원	62	12.9
	200만원 이상	46	11.8

4.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발생경험의 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발생원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변수의 특성에 따라 t-test와 ANOVA분석을 각각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자의 평균 4.01이 남자의 평균 3.6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 이는 여자일수록 노인학대 발생경험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연령은 80대의 평균 3.85, 70대의 평균 3.70, 65-69세의 평균 3.52 순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80대가 60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노인학대 발생경험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학력은 고졸미만의 평균 3.85이 가

장 높았고, 고졸의 평균 3.77, 대학교졸업의 평균 3.64, 대학원졸업의 평균 3.59 순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고졸미만이 대학원졸업 보다 높은 것을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노인학대 발생경험의 수준이 높을 것을 의미한다. 종교는 종교 있음이 3.81로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평균 3.7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혼인상태는 배우자 있음의 평균 3.81, 배우자 없음의 평균 3.77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동거유형은 아들의 평균이 3.89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딸의 평균 3.81, 독거의 평균 3.80, 친척의 평균 3.7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아들의 평균이 배우자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들과 동거하는 노인일수록 노인학대 발생경험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월평균소득은 50만원 이하의 평균이 4.01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50-100만원의 평균 3.88, 100-150만원의 평균 3.7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50만원 이하인 대상자가 200만원 이상인 대상자의 노인학대 발생경험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월평균소득이 낮을수록 노인학대 발생경험의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발생경험의 차이는 <표 4-2>와 같다.

〈표 4-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발생경험의 차이

특성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 F	Scheffe
성별	남자	3.64	.26	2.752**	
	여자	4.01	.21		
연령	65-69	3.52	.12	2.142*	a<c
	70대	3.70	.32		
	80대	3.85	.23		
학력	고졸미만	3.85	.21	3.121*	a<d
	고졸	3.77	.52		
	대학교졸업	3.64	.14		
	대학원졸업	3.59	.34		
종교	종교 없음	3.77	.32	1.114	
	종교 있음	3.81	.27		
혼인상태	배우자 없음	3.77	.20	1.231	
	배우자 있음	3.81	.23		
동거유형	배우자	3.65	.14	2.981**	a<b
	아들	3.89	.21		
	딸	3.81	.23		
	친척	3.77	.33		
	독거	3.80	.32		
	기타	3.66	.14		
월평균소득	50만원 이하	4.01	.12	3.114**	
	50-100만원	3.88	.21		
	100-150만원	3.70	.22		
	150-200만원	3.66	.52		
	200만원 이상	3.57	.24		

* p<.05, ** p<.01, *** p<.001

4.3 노인학대 발생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연구대상자들의 노인학대 발생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델 1은 본 연구모델에서 통제변수로 설정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투입하였다.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182로 노인학대 발생경험에 대하여 약 18.2%를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적합도 F값은 5.69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다(p<.001). 노인학대 발생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연령(β=.126, t=2.571), 학력(β=-.222, t=-2.324), 월평균소득(β=-.192, t=-3.943)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고 학력과 월평균소득이 낮을수록 노인학대 발생경험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모델 2는 모델 1의 변수들을 통제한 가운데, 본 연구의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발생원인을 투입하였다. 구체적인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하위변수인 개인적 요인, 가족환경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을 각각 회귀모델에 투입하였다.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268로 노인학대 발생경험에 대하여 약 26.8%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델 1에 비해 약 8.6%p 증가한 결과를 나타낸다. 모형적합도 F값은 9.51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다(p<.001). 노인학대 발생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개인적 요인(β=.211, t=2.265), 가족환경 요인(β=231, t=2.721), 사회・문화적 요인(β=287, t=3.124)의 정적인 영향관계가 유의미하였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노인학대 발생원인 가운데 개인적 요인, 가족환경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의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

학대 발생경험이 증대하는 결과를 의미한다.

노인학대 발생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표 4-3>와 같다.

〈표 4-3〉 노인학대 발생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학대 발생경험		모델 1		모델 2		VIF
		β	t	β	t	
	(Constant)	2.521	6.214***	3.824	10.214***	
통제변수	성별	-.014	-.317	.002	.018	1.01
	연령	.126	2.571**	.112	2.329**	2.11
	학력	-.222	-2.324**	-.123	-2.452**	2.10
	종교	.079	1.698	.061	1.194	1.53
	혼인상태	-.094	-.992	-.123	-2.452**	224
	월평균소득	-.192	-3.943***	-.149	-3.131**	1.22
독립변수	개인적 요인			.211	2.265**	1.32
	가족환경 요인			.231	2.721**	1.44
	사회·문화적 요인			.287	3.124***	1.86
F		5.695***		9.517***		
$adjusted R^2$		.182		.268		
d · f		480		480		

* p<.05, ** p<.01, *** p<.001

5. 결론

5.1 요약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전통적 노인부양의식의 약화 및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능력이 없는 여성 노인인구의 증가와 질병・장애노인의 증가는 자녀들의 부양부담을 가중시켜 노인학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노인학대의 경우, 반인륜적 행위이며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심각한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로 취급되어 개입하지 않는 경향이 많았다. 특히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더욱 길어짐에 따라 건강 상실, 경제적 어려움, 역할상실, 사회적 소외문제 등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가족가치관의 변화, 부양의식의 변화로 인해 가족 안에서조차 소외를 경험하는 등 학대에 노출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노인학대 발생유형에 따른 발생원인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노인학대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노인학대에 대한 조치방안 및 학대감소를 통한 노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를 노인학대의 발생원인, 종속변수를 노인학대 유형별 경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회수된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빈도분석을 실시한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발생원인, 노인학대 발생경험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T-test, ANOVA 분석을 실시한다.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노인학대 발생원인, 노인학대 발생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조사대상자의 노인학대 발생원인이 노인학대 발생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5.2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은 총 480명이었고,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 종교, 혼인상태, 동거유형, 월평균 소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268명, 남자 212명으로 여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65-69세가 281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129명, 80대 70명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미만이 19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고졸의 평균 180명, 대학교 졸업이 80명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317명으로 많았고,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63명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311명으로 많았고 배우자가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유형은 독거가 15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배우자가 148명, 아들이 82명, 딸이 37명, 친척이 31명, 기타가 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노인학대 발생원인과 발생경험의 수준에 대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학대 발생원인의 수준을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 3.39로 부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사회・문화적 요인의 평균 3.52, 가족환경 요인 3.52, 개인적 요인 3.34 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노인학대 발생경험에 대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서적 학대가 평균 4.10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경제적 학대 4.05, 방임 3.94, 자기방임 3.78, 유기 3.43, 신체적 학대 3.42, 성적 학대 2.32 순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발생원인

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노인학대 발생원인에서는, 연령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노인학대 발생원인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미만이 대학원 졸업보다 높은 것을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노인학대 발생원인의 수준이 높을 것을 의미한다. 종교는 종교없음이 3.41로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평균 3.3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 동거유형은 아들의 평균이 배우자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들과 동거하는 노인일수록 노인학대 발생원인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월평균소득은 50만원 이하인 대상자보다 200만원 이상인 대상자의 노인학대 발생원인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노인학대 발생원인의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노인학대 발생원인에서는, 성별은 여자일수록 노인학대 발생경험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80대가 65-69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노인학대 발생경험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학력은 고졸 미만이 대학원 졸업 보다 높은 것을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노인학대 발생경험의 수준이 높을 것을 의미한다. 동거유형은 아들의 평균이 배우자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들과 동거하는 노인일수록 노인학대 발생경험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월평균소득은 50만원 이하인 대상자가 200만원 이상인 대상자의 노인학대 발생경험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월평균소득이 낮을수록 노인학대 발생경험의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연구대상자들의 노인학대 발생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노인학대 발생경험에 대해 구체적인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하위변수인 개인적 요인, 가족환경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을 각각 회귀모델에 투입하였다. 회귀모형의 결정계수는 .268로 노인학대 발생경험에 대하여 약 26.8%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델 1에 비해 약 8.6%p 증가한 결과를 나타낸다. 모형적합도 F값은 9.51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다($p<.001$). 노인학대 발생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개인적 요인($\beta=.211$, $t=2.265$), 가족환경 요인($\beta=231$, $t=2.721$), 사회・문화적 요인($\beta=287$, $t=3.124$)의 정적인 영향관계가 유의미하였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노인학대 발생원인 가운데 개인적 요인, 가족환경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의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학대 발생경험이 증대하는 결과를 의미한다.

References

[1] 이근홍(2021). 「노인복지론」. 고양, 경기: 지식공동체.

[2] 양철수(2021). “공적 전달체계 공급자의 의식변화를 통한 노인의 사회적 배제 극복 방안”. 세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 행정안전부 홈피(2021).

[4] 통계청(2021). 「2021 고령자통계」.

[5] 노병일(2020). 「노인복지론」. 서울: 동문사.

[6] 송진영(2020). 「노인복지론」. 경기: 지식공동체.

[7] 노길희 외(2021). 「노인복지론」. 경기: 지식공동체.

[8] 정경자(2020). “노인 일자리사업을 통한 노인경제 활동 참여의 구축 방안 연구”. 『산업진흥연구』 Vol.5 No.1 : 89-98.

[9] 김영철 외(2021), “고령사회 노인빈곤 극복의 일자리 사업을 통한 적극적 경제활동의 방안 고찰”. 『산업진흥연구』 Vol.6 No.1 : 55-62.

[10] 박종란 외(2020). 「노인복지론」. 서울: 교학도서.

[11] 임정문 외(2020). 「노인복지론」. 서울: 동문사.

[12] 김민철(2022). “학대피해노인의 외상 후 성장에 관한 구조모형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3] 지은정(2021).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이 노인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4] 오지선(2021).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 마음챙김과 정서조절곤란의 이중매개효과”.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 현 승(Park, Hyun Seung)

- 2016년 01월~현재 : (사) 대한노인복지진흥회 대표이사
- 2007년 02월~현재 : 힘찬미래복지재단 대표
- 2022년 02월~현재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비전임교수
- 2019년 08월~현재 : 햇빛요양보호사교육원 외래교수
- 2018년 02월~현재 : 한국청소년복지연구소 소장
- 2020년 09월~현재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2020년 08월 :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M.S.W)
- 2010년 05월 : 미국 Calvin Bible 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Ph.D)
- 관심분야 : 노인복지, 노인상담, 청소년복지, 사회복지
- E-Mail : geumbat1004@daum.net